

소장펀드 수익률 마이너스 서민들 “울고 싶어라”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에 도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2개 중 1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주식형 비중이 전체 소장펀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기초자산인 코스피지수의 하락이 펀드 수익률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소장펀드의 이같은 부진은 증시 침체와 이로 인한 추가하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가입자들의 재산 손실로 이어지면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하락 등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7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200개 소장펀드(펀드 클래스 전체)의 6개월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10개 펀드(55.0%)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이 중 신영·트러스·교보외·하나·UBS·한화·KDB·베어링·유리·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유진 등 10개 자산운용사는 운용 중인 모든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체면을 구겼다.

이들 10개사가 운용 중인 펀드만 총 55개로 전체의 27.5%에 달한다.

6개월 전인 2014년 9월 말에 202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는 올해 2월 말까지도 1900선에 머무는 등 언론 슬럼프에 빠졌던 것이 마이너스 수익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전체 소장펀드 중 국내주식형 펀드만 108개(54.0%)다.

채권혼합형 펀드도 주식을 40~50%까지 채우게 돼 있어 주식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사별 수익률이 좌우됐다는 분석이다.

주가 하락·경기 침체 탓 2개중 1개 마이너스 기록

가입자 재산손실 이어져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반면, 운용 펀드 모두가 플러스 수익률을 올린 곳은 한국투자밸류·KB·마이다스에셋·NH·CA·KTB·현대인베스트먼트 등 6곳이었다.

박스권 증시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가치주와 중소형주, 배당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소장펀드는 다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겨우 체면을 유지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사별 소장펀드 수익률은 주식형펀드 운용성과에 판가름나는 편”이라며 “채권혼합형이라도 소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이 40~50%에 이르기 때문에 주가 향방에 따라 수익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장펀드가 소득공제에 수익률을 더한 펀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률의 등락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가 5000만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연간 납입한 금액(600만원)을 모두 채우면 연말정산 시 약 40만 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와 더불어 수익률까지 쟁길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3월에 도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2개 중 1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오히려 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은행 창구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자산운용사별 마이너스 수익률 소장펀드 수

	운용펀드수	마이너스 수익률 펀드	총 설정원본	비중(%)
신영자산운용	8	8	91,282	100.0
트러스자산운용	8	8	8,835	100.0
교보외자산운용	8	8	6,537	100.0
하나UBS자산운용	9	9	1,933	100.0
한화자산운용	4	4	862	100.0
KDB자산운용	6	6	645	100.0
베어링자산운용	2	2	24	100.0
유리자산운용	4	4	20	100.0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3	3	8	100.0
유진자산운용	3	3	4	100.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23	19	13,884	82.6
IBK자산운용	5	3	6,371	60.0
하이자산운용	7	4	8,967	57.1
키움투자자산운용	21	11	5,349	52.4
에셋플러스자산운용	8	4	3,981	50.0
삼성자산운용	8	4	2,602	50.0
동양자산운용	6	3	866	50.0
대신자산운용	6	3	156	50.0
GS자산운용	6	1	59	16.7
한국투신운용	8	1	3,806	12.5
미래에셋자산운용	18	2	14,746	11.1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8	0	209,144	0.0
KB자산운용	8	0	53,571	0.0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3	0	10,088	0.0
NH-CA자산운용	4	0	8,275	0.0
KTB자산운용	3	0	136	0.0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3	0	51	0.0
전체	200	110	452,202	55.0

(※자료: CEO스코어)

■ 주간 증시 포커스

외국인 귀환으로

코스피에 봄바람

2050선 보며 투자전략을

외국인 귀환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불안요인이 하나씩 거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기대감으로 6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4.56포인트(0.73%) 오른 2012.9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7주연속 강세를 이어가며 5개월만에 2010선에 안착한 것은 외국인인 코스피에서 2조1168억 원을 순매수한 덕분이다. 이제 관심은 추가상승여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이다.

유럽에서 불어오는 훈풍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기대효과이다.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국제 매입 등의 방식으로 통화량을 시중에 직접 공급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통화정책을 가리키는 경제용어이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3차에 걸쳐 양적완화를 통해 경기부양과 주가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다.

ECB는 지난 5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오는 9일부터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 예상치도 1%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CB의 양적 완화 실시로 인하여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면서 주식시장에 훈풍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패턴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외국인 자금은 급락장세에서 낙폭이 컸던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서만 매수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금융, 유통 등 업종까지 확대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다양한 업종까지 매수세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주요국이 양적완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내경제에는 긍정적이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나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은 실물경제에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정부가 46조 원 이상의 돈을 풀었고,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미미한 것이다. 특히 최근 부진한 수출이 더욱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하지만 유로존 경기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인 만큼 코스피 2050선 돌파를 기대해 보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하여 비용이 개선되는 업종과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한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근로자 59%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환원을”

한국납세자연맹 설문조사

근로소득자의 상당수가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에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법률안에 대한 질문에 65.1%(480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58.5%(431명)는 “세액공제율 인상보다 소득공제 전환이 낫다”고 응답했으며, 단순히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6.6%(49명)였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34.9%(257명)에 그쳤다.

소득구간별로는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194명) 사이에서 소득공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62.4%(12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500만원 이하에서는 57.7%, 5500만~7000만 원은 55.1%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소득공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한편, 법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연봉 5천500만~7천만원 받는 근로자들이 3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달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들은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이달 말까지 공제 항목과 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단순히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논란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세액공제 항목의 소득공제 환원을 보완대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0만 달러 만들기’ 10계명

美 US뉴스월드앤드리포트

‘10억 원’ 목돈을 만들려면 비법이 따로 있는 걸까. 미국에서는 우리 돈 10억원과 비슷한 ‘100만 달러’ 만들기가 많은 사람의 꿈이다. 매년 5%의 수익만 내도 1년에 5만 달러를 평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US뉴스월드앤드리포트’는 ‘100만 달러 만들기 10계명’을 소개했다.

▲세금을 정교하게 계산하라. ▲복리를 최대한 활용하라. ▲연금보험을 활용하라. ▲안전을 최우선시하라. ▲투자를 다각화하라. ▲세제 혜택이 좋은 은퇴 연금을 활용하라. ▲모을 돈을 먼저 빼놓고 이후 소비하라. ▲절었을 때는 소비를 자제하라. ▲참을성을 길러라. ▲오늘의 100만 달러는 2045년에는 200만 달러가 넘는다. /연합뉴스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영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대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약골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

백합촌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물 좋은 요리

-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 병 어 45,000원
-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기준시 5,000원 추가)
- 백합세트 (탕+우침+구이) 50,000원
- 백합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옆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친절 무료상담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림동 목포 경찰청 정문앞